



광주 상무



2008 시즌 성적 부진으로 고개를 숙여야 했던 광주·전남의 프로축구가 부활을 위한 밤길을 재촉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 상무는 3승7무16패의 성적으로 4년 연속 리그 최하위를 기록했다. 설상가상 2008년까지 예정됐던 광주시의 프로축구단 창단이 불발에 그치면서 팀의 거취를 놓고 마음 고생도 했다.

상무는 지난 5일 영광을 찾아 2009년을 위한 기지개를 켰다. 부상병인 박규선과 최원우를 제외한 기준 선수 19명은 영광 스포티움에 동계 훈련 캠프를 차리고 오는 22일까지 동계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기초체력훈련 위주로 진행되고, 대학 및 실업팀과의 연습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도 익히게 된다.

최성국·최원우 등 신입선수 23명은 내달 2일 군화 대신 축구화를 신고 불사조 일원으로 합류하게 된다. 이달 23일 논산훈련소에서 퇴소하는 신입선수들은 일주일간의 적응기간 뒤 2차 동계 훈련에 참가해 2009 시즌을 위한 담금질에 들어간다.

상무 이강조 감독은 “그 어느 해 보다 힘든 시즌을 준비해야 된다. 신입선수들이 얼마나 빨리 몸상태가 올라와 주느냐와 기존 선수들과 조화가 빨리 되느냐에 따라 올 시즌 농사가 좌우된다. 길지 않은 동계훈련

올 시즌 일낸다 동계 훈련 돌입



전남 선수단은 19일 중국 운명으로 전지훈련을 떠나 25일간 팀 재정비에 나선다.

지난 2007년 12월 28일 박항서 감독은 국가대표 사령탑으로 자리를 옮긴 허정무 전 감독을 대신해 전남의 사령탑을 맡았다. 자신만의 팀을 꾸리기에 시간이 촉박한데다 김치우, 고기구, 곽태휘 등 주전들의 부상이 이어지면서 정규리그 9위라는 성적으로 첫 해를 마감했다.

박 감독은 “9위는 만족할 수 없는 결과이지만 어려운 전반기 이후 전남이 한결음씩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필요한 선수의 영입에 적극적

으로 나서는 등 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치열한 겨울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전남은 새 틀을 꾸리기 위해 6일에는 수원 삼성에서 계약이 만기 된 공격수 안효연을 영입했다. 청소년 대표와 올림픽 대표를 거쳐 국가 대표로도 활약을 했던 안효연은 6일부터 바로 팀에 합류해 캠프 분위기를 달구고 있다.

축구화끈을 고쳐 맨 광주·전남의 선수들은 2009 시즌 그라운드 돌풍을 위한 겨울나기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지·성

亞 축구 황제

‘슈퍼매거진’ 올해의 선수

박지성(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임글랜드 리그컵 대회인 칼링컵 4강 출전을 대기하고 있다.

박지성이 뛰는 맨유는 8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4시45분 영국 더비 프라이드파크에서 열리는 2008-2009 칼링컵 4강 1차전에서 캠피언십(2부리그) 소속 더비 카운티와 맞붙는다.

올 시즌 단 한 골밖에 넣지 못한 박지성으로서는 칼링컵 대회가 반가울 수 있다.

박지성은 2005-2006 시즌 베밍엄시티와 칼링컵 8강에서 맨유 입단 이후 공식경기 데뷔골을 터뜨렸고 여세를 몰아 칼링컵 우승컵까지 품에 안았다.

박지성의 출격 가능성은 반반이다.

알렉스 퍼거슨 맨유 감독은 12일 열릴 ‘라 아벌’ 첼시와 프리미어리그 정규리그 홈 경기를 대비해 박지성을 이번 칼링컵 경기에서 쉬게 할 수 있다.

다면 박지성은 지난 5일 FA컵 32강에도 결장, 어느 정도 체력을 비축한 데다 경기 감각을 조율하는 차원에서 교체 투입돼 그라운드를 누릴 가능성도 있다.

박지성이 출격하게 된다면 시즌 2호 골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2부리그 팀인 상대가 비교적 약팀인데 박지성의 골 욕심이 어느 때보다 높고 좋은 컨디션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칼링컵 준결승은 휴엔드어웨이 방식으로 치러지며 1차전은 더비 카운티 홈구장에서 먼저 열리고 2차전은 21일 맨체스터 올드트래퍼드에서 치러진다.

한편 박지성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있는 스포츠 전문 미디어그룹 ‘슈퍼매거진’이 선정한 2008 올해의 아시아축구선수에 뽑혔다.

UAE, 예멘 3-1 제압

걸프컵축구대회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에서 한국과 같은 조에 속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축구 대표팀이 걸프컵 대회에서 예멘을 꺾었다.

지난 대회 챔피언 UAE는 6일(한국시간) 오만 무스카트에서 열린 2009 걸프컵 B조 1라운드에서 예멘을 3-1로 제압했다.

UAE는 이로써 2연패를 향해 순조롭게 출발하는 동시에 지난해 6월 월드컵 3차 예선에서 쿠웨이트를 3-2로 제압한 이후 11경기 만에 A매치 승리를 거뒀다. /연합뉴스



2008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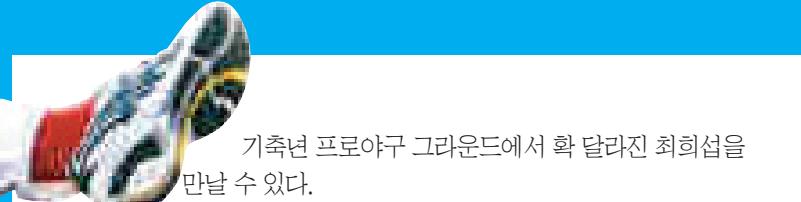
체중(kg)
128
↓
111

허리(cm)
97
↓
86

2009년 1월

빅초이가 변했다

포항 등서 ‘나만의 캠프’ 통해 몸짱 변신



기죽년 프로야구 그라운드에서 확 달라진 최희섭을 만날 수 있다.

KIA 타이거즈는 5일 무등경기장에서 합동훈련을 갖고 새 힘을 위한 힘찬 도약을 시작했다. 합동 훈련 현장에 나선 선수들은 겸개 그을린 얼굴과 시즌과 마찬가지로 날렵한 몸매를 과시하며 ‘12월은 휴식기’라는 말을 무색케 하였다.

이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선수는 극적인 체중감량에 성공한 최희섭이다.

196cm의 키에 128kg의 몸무게. 거대한 몸집으로 메이저리그에서도 ‘빅 초이’로 위력을 과시했던 최희섭은 최악의 시즌이었던 2008년을 잊기 위해 훈련을 멈추지 않았다.

매일 같이 산을 오르내리며, 포항에 자신만의 겨울 캠프를 차리기도 했다. 폭설로 중간에 발길을 돌려야만 했지만 새해를 앞두고 나지완과 설악산왕주를 준비하기도 했었다.

선수 생활 중 가장 치열한 12월을 보냈다는 최희섭은 식이요법도 병행했다. 인스턴트 식품 대신 채식 위주로 식단을 조절했다. 그 결과 96.52cm(38인치)까지 나가던 허리는 86.36cm(34인치)가 됐고, 몸무게는 111kg까지 줄었다. 꾸준한 웨이트로 근력을 더해졌다.

군살 없는 몸매로 변신하면서 얼굴 라인도 살아났고, 표정까지 밝아졌다.

‘몸짱’으로 거듭난 최희섭은 “살이 빠지면서 유니폼은 물론 양복, 사복이 모두 몸에 맞지 않아서 새로 다 장만을 하게 생겼다”면서도 “한결 몸도 가벼워지고 부상의 공포에서도 벗어나게 됐다”고 말한다.

새로운 변신을 마무리 짓기 위해 최희섭은 6일 훈련이 끝난 후 미용실로 직행했다. 3개월이 넘게 길러온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다.

조현현 감독은 물론 동료들도 깜짝 놀라게 한 최희섭의 변신은 2009 시즌 KIA 팬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추·신·수

MLB 드림팀

25명 중 외야 후보로 뽑혀

추신수(27·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미국 진신 신문 USA 투데이가 뽑은 2008년 미국 프로야구 드림팀에서 후보 외야수로 선정됐다.

추신수는 6일 USA 투데이가 뽑은 드림팀 25명 중 주전은 아니나 외야 한 자리를 능히 꾸밀 수 있는 외야 후보로 평가받았다.

이 신문은 소속 기자들의 의견을 모아 야수는 각 포지션별로 주전 1명씩과 백업 선수 5명을 뽑았고 투수는 선발 5명과 불펜 6명 등 11명으로 구성했다.

특히 드림팀의 연봉 상한을 30개 구단 전체 중 15-16위 수준인 8천만달러로 정해 대표적인 ‘저비용 고효율’ 선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었다.

추신수는 지난해 연봉 39만400달러를 받아 드림팀 25명 중 투수 글렌 파킨스(미네소타)에 이어 두 번째로 몸값이 적은 선수였으나 월등한 실력으로 고액 연봉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USA 투데이는 “추신수가 부상으로 시즌을 늦게 시작했지만 후반기 프랭클린 구터에레스를 대신해 클리블랜드 외야 한 자리를 당당히 차지했고 9월에만 타율 0.400을 때리는 등 시즌을 타율 0.309로 마쳤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한화 류현진 연봉 2억대 진입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에이스 류현진(22)이 데뷔 3년 만에 연봉 2억원대에 진입했다.

류현진은 6일 지난해 1억4천만원에서 33% 오른 2억4천만원에 한화와 재계약했다. 이는 삼성 라이온즈 마무리 투수 오승환과 세운 데뷔 4년차 최고연봉(2억2천만원)을 넘어선 신기록이다. 2006년 데뷔 첫해 투수 3관왕을 달성, 신인왕과 최우수선수(MVP)를 처음으로 동시에 거머쥐었던 류현진은 그해 말 무려 400%가 오른 1억원에 2007년 연봉에 도장을 찍었고 지난해에도 80%가 인상되는 등 수직 상승을 거듭해왔다.

/연합뉴스

이종범 동결 서재웅 삭감

KIA 타이거즈 연봉 2억원·3억7,500만원 재계약

을 계속할 수 있게 해 준 구단과 팬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올 시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재웅은 5억에서 25% 삭감된 3억7천5백만원, 나지완은 2천만원에서 90% 인상된 3천8백만원에 각각 연봉 도장을 찍었다.

한국 무대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렀던 서재웅은 부상으로 풀타임을 소화하지 못하며 지난 시즌 16경기에 등판, 5승 5패 방어율 4.08을 기록했다.

이날 서재웅은 “구단의 성적을 냈기 때문에 삭감 방침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KIA는 연봉 계약 대상자 52명 중 38명과 재계약을 끝내 재계약률은 73%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